



주요 통계



출처: BFS/WEF/GfK Kaufkraft Europa, 2021

스위스 인력 시장

개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자율적인 노동 법규를 가진 나라로서 고용주들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기업들은 어려움 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상업적 필수사항만 맞다면 짧은 통보 기간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부수적인 임금 비용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이며 스위스에서 지난 10년간 파업이 일어난 횟수는 유럽의 모든 국가중 가장 낮습니다. 높은 삶의 질과 연봉을 자랑하는 스위스는 노동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파업일수

유럽 순위 (연간 노동자 1,000명 기준, 2010-2019)

국가	일수	국가	일수
스위스	1	덴마크	45
아일랜드	16	스페인	49
독일	17	노르웨이	55
영국	18	핀란드	59
네덜란드	19	프랑스	121

출처: 유럽 무역 조합, 2021

인재가 선호하는 지역 매력도

인재 유치 매력도, 2021

국가	순위	국가	순위
스위스	1	네덜란드	6
싱가포르	2	핀란드	7
미국	3	룩셈부르크	8
덴마크	4	노르웨이	9
스웨덴	5	아이슬란드	10

출처: INSEAD 글로벌 인재 경쟁력 인덱스, 2021

고용주의 혜택

- 높은 삶의 질과 훌륭한 근무 환경 덕분에 스위스에는 능력있는 해외 직원들과 경영자들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재능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스위스가 꼽혔습니다.
- 스위스는 높은 생산성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특히 제약, 보험 및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기계 및 전기 공학 분야에서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 스위스 인력 시장은 매우 융통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기업들은 상업적 필수사항에 맞춰 쉽게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에 대한 진보적인 자세는 스위스 문화에 뿌리 깊게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민들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력한 노동시장 법규를 정하는 국민 투표 및 의결안은 항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법정 휴가일을 6주로 정하는 의결안 역시 국민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직원 고용 및 해고 관련 기업의 융통성

스위스 기준 다른 국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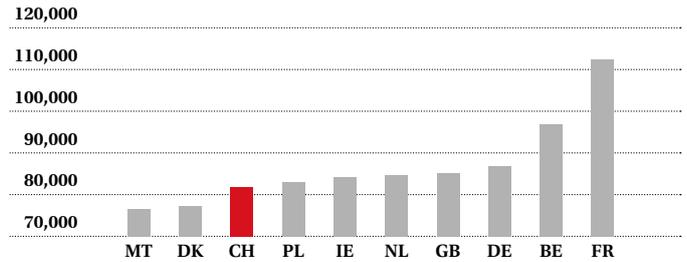
국가	순위
 홍콩	1
 스위스	2
 싱가포르	3
 아제르바이잔	4
 미국	5
 아이슬란드	6
 덴마크	7
 카타르	8
 아랍에미리트연합국	9
 말레이시아	10

출처: WEF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2019

-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총 급여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스위스는 직원 당 사회 보장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동일한 총 급여액으로 비교했을 때 스위스는 유럽 국가 중 사회보장 비용이 낮은 순으로 세번째입니다.

유럽내 실질적인 고용 비용 비교

총 급여 75,000 유로 이상인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출처: 딜로이트, 2019

- 스위스 교육 시스템은 높은 실용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훌륭한 응용 과학 대학이 포함된 이중 교육 시스템으로 보장되어 집니다. (스위스 직업 훈련 자료표 참조 www.s-ge.com/education). 세계 경제 포럼(WEF)은 지속적인 직원 교육 및 훈련부분과 직원 고용 부분, 그리고 대학 졸업자 교육 측면에서 스위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 스위스는 효과적인 사회 공헌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직원과 고용주간의 갈등은 매우 적으며 파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간의 협력 수준은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협력도

스위스 기준 다른 국가 순위

국가	순위
싱가포르	1
스위스	2
덴마크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8
미국	21
아일랜드	23
독일	30
영국	33
프랑스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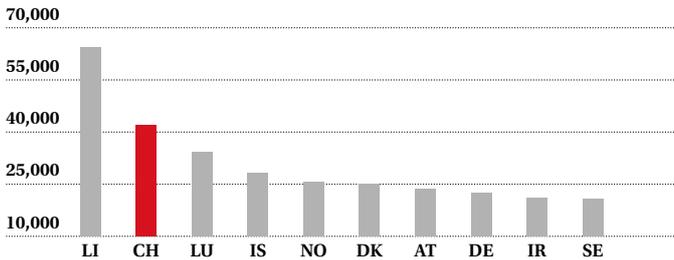
출처: WEF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2019

직원 혜택

- 스위스의 고용율은 아이슬란드 다음을 두번째로 높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79.9%가 유급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6.1%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동시에 스위스의 실업률은 3.1%로 매우 낮습니다. (2020)
- 스위스 노동자들은 높은 구매력을 가집니다. 2020년 스위스는 평균 가처분 소득이 41,998유로로 집계되어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를 넘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내 구매력 10위 국가

2020년 유로기준 노동자 평균 구매력



출처: GfK Kaufkraft Europa, 2020

- 스위스는 다른 국가들보다 임금이 높은 이유로 중간 관리자 직원들이 자석에 이끌리듯 몰려드는 곳입니다. 세금 및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들과 고정비용 (월세 등)을 제하고 난 순임금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1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집니다.

- 더 나은 OECD “더 나은 삶 지표”에 따르면, 스위스는 삶의 질과 관련된 많은 사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위스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 주관적인 웰빙, 취업, 수입과 부, 건강, 사회 관계, 환경, 교육, 일과 삶의 균형, 주택공급, 보안

세금

원천징수세

스위스 국적이 아니고, 영주권이(신분증 C) 없는 많은 피고용인들은 스위스에 원천징수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에서 직접 차감되며 고용주가 바로 조세당국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에 고용되지 않았으나 스위스에 거주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천징수세 대상 수입이 12만 스위스 파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입 및 자산에 대하여 법에 명시된 추가 과세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스위스 주민세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들(국경을 넘어 통근하는 사람들, 평일에만 스위스에 머무는 사람들, 자문위원회로 활동하는 사람들, 예술가, 운동 선수, 연사) 또한 스위스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 특정 금액을 넘는다고 해서 추가적인 과세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현황

- 스위스 연방 정부는 이중 직업 훈련 시스템의 혜택이 국제적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직업 훈련 자격증을 인증되는 곳이 더욱 많아 지게 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더욱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위스는 효율성, 품질, 그리고 직업 훈련에 대한 관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EU 코펜하겐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추가정보

관계당국

연방 교육 연구 혁신 사무국
sbfi.admin.ch

경제 사무국

seco.admin.ch

디플로이먼트 -

스위스 취업 및 급여 환경

플랫폼

entsendung.admin.ch

발행물 및 기구

OECD 더 나은 삶 지표

oecdbetterlifeindex.org

딜로이트 유럽 연봉 설문

www2.deloitte.com

WEF 세계 경쟁력 보고서

weforum.org

국립 임금 계산기

entsendung.admin.ch

KPMG 온라인 세율

kpmg.com

스위스에서 거주하고 근무하기 -

스위스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을 위

한 가이드

www2.deloitte.com

협회 및 네트워크

노동자 연합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arbeitsgeber.ch

S-GE 자료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s-ge.com/handbookforinvestors

사업 소재지로서 스위스에 관한 더

많은 자료

s-ge.com/factsheets

스위스 무역투자청은 무상 자문을 해드립니다.

유럽으로 확장하며 스위스를 귀사의 사업 소재지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귀사의 정착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과 지원을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귀사와 각 주별 사업개발 사무국과 연계해 드리고 세제, 부동산 등과 같은 관련전문가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s-ge.com/invest